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www.danojefestival.or.kr

2024
강릉단오제
GANGNEUNG DANOJE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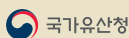
스리 신통대길
스기 길놀이

2024. 6. 8(토) 19:00 ~ 22:00



새강릉단오제위원회

국가무형유산
새강릉단오제보존회



강원특별자치도



신통대길(神通大吉) 길놀이는

신을 단오 제단으로 모시는 '영신 행차'의 뒤를 이어 강릉시 21개 읍·면·동 주민들이 마을별 특색을 담아 다양한 주제로 펼치는 퍼레이드 식 퍼포먼스입니다.

180분간의 신명나는 신통대길 길놀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4 강릉단오제 GANGNEUNG DANOJE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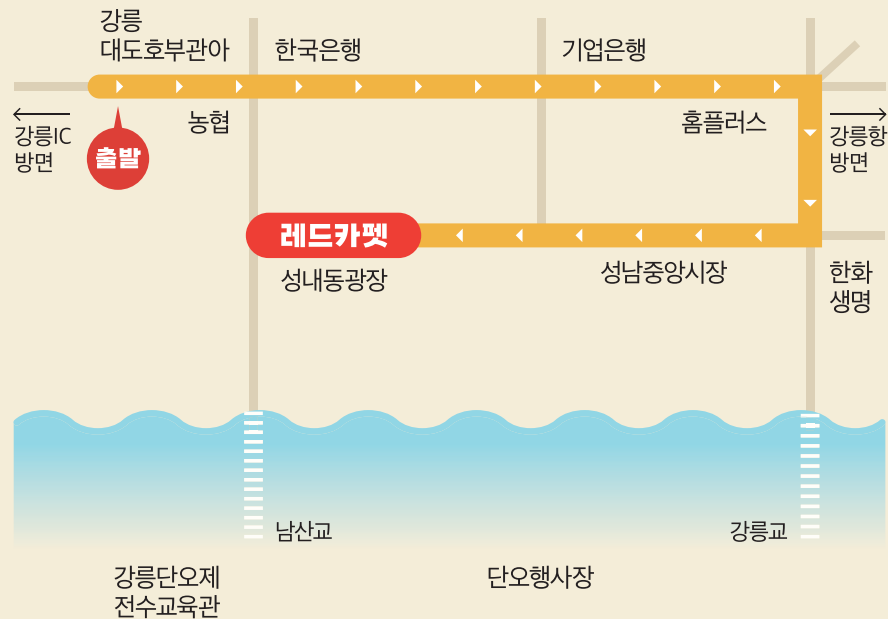


2024 신통대길 길놀이 코스

강릉대도호부관아(출발)
↓
옥천 오거리
↓
성내동 광장(레드카펫 3분 퍼포먼스)

2024신통대길 길놀이는 강릉시 읍·면·동 21개, 사전 공연팀을 포함해 일반·기관 단체 13개, 총 34개 팀이 참여합니다.

contents



- | | |
|---------|--------------|
| 04 교1동 | 16 포남2동 |
| 05 강동면 | 17 경포동 |
| 06 구정면 | 18 강남동 |
| 07 사천면 | 19 흥제동 |
| 08 연곡면 | 20 옥천동 |
| 09 성산면 | 21 중앙동 |
| 10 옥계면 | 22 성덕동 |
| 11 왕산면 | 23 송정동 |
| 12 주문진읍 | 24 초당동 |
| 13 포남1동 | |
| 14 교2동 | 25 일반·기관 단체팀 |
| 15 내곡동 | 26 영산홍 악보 |



초·중·고와 인근 대학교까지 강릉에서 제일 많은 학군을 보유하고 있다. 거주하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만큼 젊은 세대의 문화가 두드러진다. 김유신 장군을 모신 화부산사가 있어 마을의 유서 깊은 전통과도 조화를 이룬다.



강릉을 이끄는 교1동의 꿈과 미래

길놀이 스토리

대관령 산신이 된 김유신 장군을 모시는 사당 화부산사가 있는 교1동을 표현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김유신 장군과 사병들로 분장한 행렬,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주로 한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퍼레이드가 이어진다.

관전 포인트

강릉의 현재와 미래가 함께 어우러진 단오의 향연



강동면은 18km의 길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는 마을이다. 마을마다 해돋이와 바다, 연꽃, 단경골, 감나무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특산물로 유명하다.



마을의 정과 부채길을 품은 곳! 강동

길놀이 스토리

강동면의 명물 '감'을 노란색 옷과 모자로 표현하고, 관광명소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홍보하기 위해 부채를 든 주민들이 퍼레이드에 동참한다. 함께 강동면 댄스를 추면서, 마을의 화합과 정을 보여준다.

관전 포인트

정이 많고 감이 많은 부채를 든 강동면 사람들



강릉단오제의 주신 '범일국사'가 태어난 마을이다. 학산 오독떼기, 굴산사지 당간지주 등 많은 무형·문화유산과 솔향수목원이 있는 문화마을이다. 최근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돼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흥겹고 화목한 구정면

📖 길놀이 스토리

국내 최대 규모의 굴산사지 당간지주 조형물을 선두로 길놀이 행렬이 이어진다. 구정면 학산리의 상징인 학이 춤을 추고, 각 마을의 상징과 유래를 알리는 화합의 행진을 펼친다. 어린 학, 마을의 상징물, 마을주민, 라인 댄스팀, 큰 학, 이렇게 다섯팀이 오방색 줄 돌리기를 한다.

💡 관전 포인트

오방색 줄 돌리기로 표현하는 마을 화합



딸기, 감자, 쌀, 개두름, 한과 등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매년 즈음날마다 풍년을 기원하는 사천하평담교놀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핑과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포츠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사천아! 솟아 올라라~

📖 길놀이 스토리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강릉사천하평담교놀이를 모티브로 주민과 서퍼, 스쿠버들과 함께 신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매년 즈음날 술문을 만들어 햇불을 밝히고 하늘의 별을 보며 한해의 풍년을 점치고 염원하듯이, 레드카펫에서 하평담교놀이를 시연하며 강릉의 풍요와 안녕을 빈다.

💡 관전 포인트

하평담교놀이의 하이라이트 투석전을 쌀주머니와 사천한과로 재미있게 재연



선사시대 유물과 고인돌이 발굴될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유서 깊은 지역이다. 대한민국 명승 1호인 소금강산, 맑고 깨끗한 계곡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해변과 계곡을 두루 품고 있어서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안부 묻는 연곡, 함께하는 연곡

길놀이 스토리

지난 수년간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이웃과 점점 단절돼 가고 있는 안타까움에 이웃과 함께 화합하는 단오축제를 표현한다. 오대산과 연곡천, 영진해변까지 산, 강, 바다를 모두 가진 연곡면의 특징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소금강산의 구룡폭포와 영진어촌마을 풍어제의 용신을 형상화한 용 조형물을 중심으로, 어린이 난타팀까지 모든 연령과 계층이 '함께하는 연곡'을 보여준다.

관전 포인트

세대 화합의 상징으로 어린이 난타팀의 깜찍하고 멋진 퍼포먼스



대관령에서 신목을 모셔 오는 과정 중 가장 먼저 들르는 마을이다. 신을 맞이하는 의식인 영신히빛불놀이의 전통이 전해지고 있다. 우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며 '용이 물을 달고 온다'는 의미로 '용물달기' 전통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영신히빛불놀이와 용물달기

길놀이 스토리

영신히빛불놀이와 함께 용의 해를 맞이 용의 기운을 받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신목은 마치 움직이는 설치미술처럼 표현했다. 소품과 장치가 어우러져 시각효과를 내면서 무엇보다도 신과 사람 중심이라는 개념으로 주민들이 신명나게 즐기는 모습을 연출했다. 신을 기쁘게 맞이하며 주민 화합의 장을 보여준다.

관전 포인트

용의 힘찬 기운 받아 가세요



강릉시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산과 바다를 동시에 품은 마을이다. 소도시, 농촌, 어촌, 공장지구 등이 분포돼 있어 주민들의 생활 구조가 다양하다.



어가행렬

길놀이 스토리

코로나로 인해 다년간 강릉단오제에 왕림하지 못한 왕께서 올해 2024년 강릉 단오제를 맞아 어가행렬을 이끌고 강릉을 찾았다. 그간 코로나로 고생한 강릉 백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강릉단오제가 성황리에 잘 개최되라는 염원을 담아 옥계에서 채취한 수리취로 만든 수리취떡을 나눠 준다.

관전 포인트

왕비, 세자까지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화려한 왕의 행차



척박한 자연을 개척한 화전민 정신이 살아있는 마을이다. 국내 최대의 고랭지 채소밭인 안반데기와 노추산 모정탑으로 유명하다. 감자, 친환경 쌀, 개두름이 마을의 특산물이다.



멧돼지 사냥 재현 놀이

길놀이 스토리

옛날부터 왕산면에서 행해지던 멧돼지 사냥을 재현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나무로 만든 스키를 타거나 설피를 신고 등에는 벗짚 가방을 메고, 창을 들고 여럿이 함께 사냥을 나간다. 멧돼지를 만나면 우두머리가 선창을 하고 그 신호에 맞춰 멧돼지 사냥을 하던 풍습을 보여준다.

관전 포인트

흥미진진한 멧돼지 사냥



아름다운 해변과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한 항구도시다. 동해안 최대의 어항 중 하나로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수산시장은 물론 매월 1일과 6일에는 주문진 오일장이 열린다. 깨끗한 백사장과 맑은 바다, BTS버스정류장, 드라마 도깨비, 더글로리 촬영지 등 관광명소가 많다.



숫아라! 주문진, 빛나라! 주문진

📖 길놀이 스토리

주문진 등대는 1918년 강원도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등대로 동해안 어업인들의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주문진 등대의 불빛에 따라 고기잡이 어선의 그물과 오징어잡이 배, 명태 등 각종 수산물을 말리는 덕장을 연출해 어촌문화를 보여준다.

💡 관전 포인트

주문진 특산물 오징어를 맛보는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된 '용지'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용지각은 포남1동의 랜드마크다. 1990년대 강릉의 도심권 형성의 거점으로 강릉경찰서와 우체국이 위치해 있다.



용의 비상, 희망찬 강릉의 미래

📖 길놀이 스토리

마을에 자리한 용지각의 전설을 모티브로 말이 용이 되어 승천하는 이야기를 그려낸다. 조명으로 화려하게 단장한 용지각 조형물과 힘차게 비상하는 용 두 마리의 모습을 통해 희망찬 미래로 전진하는 강릉시의 모습을 표현한다.

💡 관전 포인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참여하는 주민 화합의 장



과거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었던 강릉 향교의 역사를 간직한 마을이다. 문향과 예향의 도시 강릉의 상징이자 지역 정신 문화의 산실인 향교가 여전히 마을 전통의 중심을 이어가고 있다. 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강릉역이 자리 잡고 있다.



유생들 어사화의 꿈

길놀이 스토리

과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집을 떠나 향교에서 동문수학하며 어사화의 꿈을 실현하고자 애쓰던 유생들의 이야기를 재연한다. 유생들은 과거 급제를 통해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던 교육기관인 향교가 마을 자랑임을 해학과 재치로 알린다.

관전 포인트

장원급제 영광의 순간을 재현하는 유생 이야기



남대천을 끼고 울창한 송림이 있는 도농 복합 지역이자 신복 사지 삼층석탑과 석불좌상이 있는 문화유산 보존지역이다. 내곡동은 예로부터 '노래곡'이라 하여 효자가 많고 장수하는 동네로 유명하다.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한 효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효(孝)의 마을이다.



효(孝)의 마을 내곡동 경로잔치

길놀이 스토리

효자 아들이 100세 어머니의 경로잔치를 연다. 주민들이 함께 건강을 기원하며 즐기고 축하하며 진정한 효의 의미를 전한다. 잔치에 빠질 수 없는 술, 유명한 강릉 소주의 생산지 내곡동의 자랑인 강릉의 술 자랑도 이어진다.

관전 포인트

연로하신 어머니와 아들은 실제 모자 관계



봉화로 소식을 알리던 봉수대를 주민의 손으로 직접 복원하면서 지역문화 유산을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선 마을이다. 2010년부터 강릉단오제 길놀이를 통해 소동산 봉수대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있다.



소동산 봉수대! 강릉단오제 개막을 알리다

길놀이 스토리

소동산 봉수대에 연기를 피워 올려 2024 강릉단오제의 개막을 알린다. 옛 관복을 입은 주민들이 소동산 봉수대의 조형물과 함께 등장해 거화의를 재현한다. 아군과 적군으로 편을 나눠 봉수대를 지키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연출한다.

관전 포인트

단체 안무와 봉수대를 지키는 전쟁



관동 8경 중 제1경인 경포대와 오죽헌, 선교장 등 전통문화 유산과 동해안 최대 해변인 경포해변, 경포호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이 어우러져 내륙과 해안의 특성이 잘 조화된 마을이다.



경포의 바다, 그리고 다섯 개의 달

길놀이 스토리

기수 뒤를 이어 경포 다섯 개의 달을 표현한 조명들이 등장한다. 이어서 호수 산책로를 즐기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연출한다. 맑고 깨끗한 경포해변의 파도와 물고기를 소품들로 실감 나게 표현한다. 경포의 달님에게 강릉시민의 안녕과 경기 회복을 비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관전 포인트

경포의 달님에게 소원을 빌어보세요.



강릉단오제 행사가 펼쳐지는 중심 무대이다. 무월랑과 연화부인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월화정이 위치한 마을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무월랑과 연화낭자의 약속

길놀이 스토리

잉어가 맺어준 무월랑과 연화부인의 사랑 이야기를 퍼포먼스로 펼친다. 연화부인이 쓴 편지를 잉어가 무월랑에게 전해준 뒤 둘의 사랑이 이뤄진다. 이후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명주군왕 김주원이다. 월화정에 얽힌 천년의 러브스토리과 함께 강남동 농악대와 주민들이 축제의 장을 만든다.

관전 포인트

사랑의 약속을 맺어준 잉어 모양의 열쇠고리 선물을 놓치지 말자.



강릉단오제 주신인 대관령국사성황신의 부인 정씨 처녀가 신으로 모셔진 '국사여성황사'와 정씨처녀의 친정집 '경방택'이 자리하고 있다. 그만큼 강릉단오제에서 홍제동이 갖는 위상과 주민들의 자부심이 크다.



대관령국사성황신과 여성황신의 첫날밤

길놀이 스토리

대관령국사성황신과 결혼해 국사여성황신이 된 정씨 부인과의 설화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펼친다. 호랑이가 맺어준 두 남녀 신의 결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뮤지컬 음악 'summer night'으로 재치 있게 연출한다. 국사성황신 범일 국사와 정씨 부인의 합방을 축하하는 장자마리들의 군무가 흥겹다.

관전 포인트

설화와 뮤지컬 음악에 맞춘 화려한 군무



동부시장과 중앙시장, 옥천오거리를 잇는 옥천동은 오랫동안 강릉에서 가장 변화한 중심지였다. 대한민국 보물인 대창리 당간지주와 수문리 당간지주가 그 옛날 번성했던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준다. 천년 수령의 옥천동 은행나무도 마을의 자랑이다.



'수문리 운하 유람선' 따라 '천년의 은행나무'와 함께 신명 난 단오행진

📖 길놀이 스토리

마을을 대표하는 천년 수령의 옥천동 은행나무를 노란색 의상으로 표현한 주민들이 울동에 맞춰 춤을 춘다. 과거 옥천동에서 강문으로 통하던 내륙 운하가 있어 유람선을 타고 소금강이라 불리던 청학산까지 유람했다고 전해진다. 이를 '수문리 운하 유람선'으로 재현해 옥천동을 지나가던 강릉의 옛 물길을 그려본다.

💡 관전 포인트

한자리에서 만나는 옥천동 천년의 역사와 문화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부사가 고을을 다스리던 관청인 '강릉대도호부관아'가 자리 잡고 있다. 중앙시장, 서부시장 등 3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해 문화·교육·의류·금융·상업의 중심지다.



강릉부사, 강릉 단오장 행차

📖 길놀이 스토리

포도대장과 포졸들의 호위를 받으며 단오장을 시찰하는 부사 행차와 함께 단오 민속놀이를 소개한다. 단오 때 펼쳐지는 민속놀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윷놀이, 투호, 널뛰기, 씨름, 그네뛰기, 창포머리감기를 레드카펫에서 재현한다.

💡 관전 포인트

단오 민속놀이 시연



강릉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까지 다양한 학군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연령대별 인구분포가 다양해 다이 내막한 에너지가 있는 마을이다.



1998 뷰티풀 성덕

길놀이 스토리

1998년 입암동, 병산동, 청량동, 두산동, 학동, 남향진동 6개의 법정동이 '성덕동' 이라는 행정동으로 통합됐다. 도시, 농촌, 바다, 공단이 모두 어우러져 성덕동민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살고 있는 '뷰티풀 성덕동'을 울동으로 표현한다.

관전 포인트

어린이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주민들의 동참



해안가 소나무와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유명하다. 강릉커피거리가 있는 안목해변과 패들보드, 카이트 보딩 등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송정해변이 마을의 자랑거리다.



커피와 해양레포츠의 만남

길놀이 스토리

천년을 이어온 조상들의 단오풍습을 '신명나는 놀이마당'으로 재연해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선두에 커피 바리스타 30여 명이 출동하고 주민자치센터 라인댄스 팀의 흥겨운 춤사위가 이어진다. 안목해변 카페들의 깃발 행렬로 마을의 자랑 강릉커피거리를 알리고 해양레포츠의 성지답게 서프보드로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관전 포인트

신통대길 길놀이 즉석 카페에서 맛보는 커피



경포호수 옆에 자리한 바닷가 마을로 초당두부가 유명하다. 강릉의 대표적인 문장가 허균과 허난설헌이 어릴 적 뛰놀던 허균허난설헌생가터, 강릉을 지켜주는 진도배기가 있는 강릉해변 등 다채로운 관광명소와 맛집이 많다. 지난해부터 초당미식로드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초당두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담(담)다.

📖 길놀이 스토리

마을을 대표하는 초당두부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를 퍼포먼스로 풀어낸다. 퍼레이드에서는 허균과 허난설헌이 뛰놀던 곳이라는 걸 표현하고, 강릉의 수호신, 물·불·바람을 막아주는 진도배기, 초당두부를 통해 미식관광의 메카 초당동을 알린다.

💡 관전 포인트

따뜻한 초당두부 이야기와 함께 맛보는 두부

Welcome Special team

2024신통대길 길놀이는 21개 읍·면·동 외에도 길놀이 사전공연에 4개 팀, 길놀이 퍼레이드에 9개 팀, 총 13개의 일반·기관 단체팀이 참가합니다.



신통대길 길놀이 사전공연팀

강릉시체조협회, 라온합창단, 강릉프리모어린이합창단, 강릉시립합창단

신통대길 길놀이 일반·기관 단체팀

(사)강릉단오제보존회, 강릉사천하평담교놀이보존회,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모델교육협회, 태락,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사)강릉농악보존회, 강릉그린실버 악단, 2024 강릉단오제 축구정기전(강릉제일고등학교 vs 강릉중앙고등학교), 강릉시민축구단 유소년팀

영산홍

편곡 이연희

2024 강릉단오제와 함께합니다

♩=ca.148

[전주]

3 *f*

이 히야 - 헤 - 에 헤야 에헤이야 얼싸기화-자자-영산 홍

[다같이]

10 *f*

이 히야 - 헤 - 에 헤야 에헤이야 얼-싸기화 자자 - 영산홍

17 *mf*

1.영산홍-로 봄바람-에 가-지가지가 꽃피웠-네기화자자 영산홍

2.꽃밭일-레꽃밭일-레사-월보름달 꽃밭일-레기화자자 영산홍

29 *f*

이 히야 - 헤 - 에 헤야 에헤이야 얼-싸기화 자자-영산홍

35 [간주] [다같이]

4 *mf*

3.일-년-에 한 번밖-에 못-만나는 우리연-분기화자자 영산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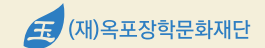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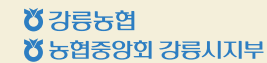
4.가 고파-라 가고지-고어-서바빠 가자서-라기화자자 영산홍

51 *f*

이 히야 - 헤 - 에 헤야 에헤이야

55 *rit.* *ff*

얼-싸기화 자자-영산홍 얼-싸기화 자자-영산홍





2024
강릉단오제
GANGNEUNG
DANOJE
FESTIVAL